



5면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 · 관광자원화 머리 맞대

전주매일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음 12월 8일) 제390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성장엔진 3개 분야로 '특별자치도' 위상 굳힌다

신재생에너지 · 첨단시모빌리티 · 푸드헬스테크 등 3개 분야 선정 목표 수도권 멀수록 두텁게 지원... '3특' 전북 국가균형발전 핵심 거점 주목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5급 3특 성장엔진 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첨단시모빌리티, 푸드·헬스테크 등 3개 분야 선정을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업으로 수도권 집중 속에서 조명받지 못했던 전북이 국가 신성장 지도를 그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지난 23일 도에 따르면, 5급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5급)과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의 구조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5급3특 체제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전북은 5특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3개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북이 성장엔진으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새만금의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를 토대로 한다.

2030년까지 새만금과 고창·부안 해상에 총 31조원을 투자해 해상풍

력 4GW, 육상·수상 태양광 3GW 등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은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저장·운송이 가능한 수소로 전환하는 P2G 기술을 적용해 생산-저장-활용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RE100산단과 연계해 수소생산·저장 연료전지, 모빌리티까지 결합한 대규모 시장 창출을 구상하고 있다.

첨단시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북은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T.M, LS엔트론 등 완성차 중심의 소재·부품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조원 규모의 '협업지능 퍼지컬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 유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으로 퍼지컬AI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새만금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군산·완주 산업단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 전국 유일의 실증 인프라를 갖춰 제조산업 디지털 전환의 국가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푸드·헬스테크 산업은 전북만의 차별화된 강점으로 꼽힌다.

김제의 종자·스마트농업, 순창의 발효미생물,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대체육·동물의약품, 정읍의

전임상 인프라와 영장류 자원, 남원의 천연물·화장품 등 지역별 특화 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다.

특히 R&D에서 비임상(GIP), 임상(CCP), 완제품 생산까지 한 곳에서 연결되는 '원링크 시스템'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전북특별법 특례와 새만금 메가메드파스를 결합해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와 비용 효율성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선정된 성장엔진 산업에 인재양성, 강력한 규제완화, R&D·인프라, 재정, 펀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은 지난해 10월 희망산업을 제출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오는 2월 최종 선정과 지원 패키지가 마련되고, 6월까지 권역별 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국가적 자산과 함께 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 분야에서 타 지역이 갖추지 못한 실증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성장엔진 선정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신성장 거점으로 전북이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아이들의 복합놀이시설 문 열다

지난 23일 정읍애육원 복합놀이시설 '드림플레이스' 가 문을 연 가운데, 이학수 정읍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등 내빈들이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관련기사 8면>

“도민·당 분열로 이끄는 흑색선전에 대응”

민주 이원택 의원, “친명·친청과 같은 프레임으로 여론 호도, 전북의 미래에 도움 안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최근 도지사 후보 도민들의 지지를 상승곡선과 관련, 흑색선전에 대한 자신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특히 그는 “자신은 대학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정통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으로 한치의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이원택으로 남겠다”며 “민주당을 헤치는 음해세력이 전북도민과 민주당을 분열로 이끄는 것에 단호하게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에서 저를 특정 정치인의 '사람'으로 규정하며 계파 프레임에 씌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으로 이러한 구태 정치적시대 발상으로 낙인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실 이 의원의 경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노선을 바꾸거나 당적을 옮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민의 뜻과 민주당의 가치에 반하는 선택을 한 적도 없는 정치인으로 이미 도내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해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일관되게 한우물만 파온 헌신적인 인물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 경선캠프, 중앙선대위,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로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온 것도 이미 행동으로 증명된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러한 행보는 계파가 아닌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연대, 국민과 민주당을 향한 책임의 정치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명·친청과 같은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을 뿐더러 이는 민주당의 승리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전북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삼각편대를 이뤄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사실 왜곡과 분열 조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도의회, 새해 첫 회기 개최 |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임시회... 시책 방향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026년 첫 회기인 제424회 임시회를 26일 열고 오는 2월 6일까지 12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올해 전북자치도의회는 모두 9회(정례회 2회, 임시회 7회)의 회기를 열어 123일에 걸쳐 운영할 예정이다.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와의 유정기 교류감 관한 대회의 2026년 도정 및 교육·학예행

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하고, 이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영국 의원(비례)이 2026년 신년 계획 및 중점 실행과제를 담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또 10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등 전북 유치 결의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 촉구 결의

안 등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울러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실·국·원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과 민생 현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안건(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전북소방,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위험 대응체계 가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이달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일간 2026년 봄철 산불 예방·대응 소방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전북소방은 건조·강풍 특보 발효 시와 청명·한식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과 현장 안전조치를 집중 실시하고, 과거 산불 발생지역과 산림 인접마을, 전통사찰·목조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관서장 중심의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형산불 사전 차단을 위한 대비 태세도 강화된다.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경우 소방지휘관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산불 취약지역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며 예비 살수 등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소방관서 접근이 어려운 산림 인접 마을에는 의용소방대와 주민이 참여하는 자율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인명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가용 소방력을 초기부터 최대한 투입한다. /오만호 기자



군산

군산의 매력, 근대 역사의 향기를 느끼고 산책하며 마음의 여유를 더해요

군산시 동국사길 16

GUNSAN CITY